

# 보성군, '다향아트밸리' 위탁운영 기관 모집



보성군은 다음 달 4일까지 보성읍 봉산리 한국차문화공원 일원(녹차로 783번)에 조성한 '보성군 다향아트밸리(이하 다향아트밸리)'를 운영할 수

## 보성읍 봉산리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 조성 26일 현장설명회 갖고 다음달 4일까지 모집

타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향아트밸리는 전시판매동(지상3층)과 문화체험동(5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 연면적은 2,133㎡ 규모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복합문화공간(전시, 판매, 체험, 편의시설, 커뮤니티, 기타시설) 관리 및 운영 단일 건에서 연간 7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실적을 낸 법인·단체이며, 컨소시엄(3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도 가능하다. 위탁료는 예정이 136,830천원/년(부가세 별도)이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3년이다. 선정방법은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평가 합산 점수의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수탁기관은 다향아트밸리 전체 시설면적의 30% 이상을 차(茶)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보성군 소재 업체가 시설운영에 반드시 참여하고 보성 지역 농특산물 판매 공간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현장설명회는 오는 26일 다향아트

밸리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현장설명회 신청기한은 오는 25일 18시까지다. 현장설명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성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게재되어 있다. 한편, 보성군 다향아트밸리가 지역 차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녹차의 역사의 문화 그리고 관광 사업이 어우러지는 복합단지로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성군 다향아트밸리는 농림축산식품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지역역량강화사업'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총사업비 53억 원이 투입됐다. 보성=김택순기자

## 순천시, 일상의 행복 도시 브랜드 향상 인구정책 추진

순천시는 호남 3대 도시를 넘어 30만 자족도시 달성을 위해 시민체감·미래대비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추진으로 인구유입 동력확보와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시는 올해 1월 말 기준 인구 282,618명으로 지난해 11월 달성한 호남 3대 도시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는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4개 과제 152개 사업 추진으로 시민체감 복지시책 및 정주 기반 확충 등을 지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분야에서는 태아 기형아 선별 검사비 지원, 출산 장려금 확대 지원,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난임 부부 지원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신규 사업 추진으로 임신 전부터 출산까지 맞춤형 지원과 다함께 돌봄 센터 확대 운영, 순천 풀뿌리교육 강화, 순천만 집월드 및 유·청소년 수영장도 개관하여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 교육 환경 조성으로 출산·육아, 교육까지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고 돌보는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이 꿈을 펼치는 기회의 도시' 분야에서는 디지털 일자리 창출, 천연물 바이오산업 육성 등 순천형 신성장 일자리 모델을 만들고 창업연당, 청년센터, 글로벌웹툰센터 운영, 청년 급속장려금, 희망통장사업, 순천형 맥가이버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자립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반값 임대아파트 공급, 신혼부부대출이자 지원 등 안정적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노후가 편안하고 활기찬 도시'분야에서는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워터휴 실버 카페, 경로당 코디네이터, 순천 손질 말치, 한 뽕 정원 그린 기동단 등 순천형 노인일자리 제공, 전 시민 치매 치료비 지원 및 치매 전담형 주간 보호센터 개관, 지역 통합돌봄사업 확대 등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황혼생활을 누리도록 다양한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누구나 살고 싶은 힐링 정주 도시' 분야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 정착, 미세먼지 차단 숲 등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 장천동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소규모 마을 단위 배움터인 순천 모두의 학교 운영, 작은 도서관 확대 등 어디서나 누리는 시민 중심의 문화 교육 환경과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 인프라 구축으로 정주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누구나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시책 발굴 간담회 개최

### 7개 상공인단체 참석...현장 목소리 수렴·지원방안 검토

광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지역업자와 소상공인의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근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소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지원시책 발굴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타개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는 이화엽 지역경제과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광양경제활성화본부, 광양소상공인연합회, 광양·동광양

상공인회, 광양만상공인회, 광양상공인연합회, 광양외식업지부 등 관계자 16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장형곤 경제복지국장은 "광양시가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으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책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적극 홍보해 달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 가감 없이 의견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설명하고 타 기관의 지원사례를 공유한 뒤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시책으로 보증지원을 위한 선사인 특례보증 2억원,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 8억원, 맞춤형 경영 컨설팅과 멘토링 연계 3천 4백만 원, 시설개선사업비 5천만 원,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 2천 7백만 원 등을 소개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고흥군, 제조혁신 스마트공장 구축 희망기업 모집

### 업체별 80% 사업비 보조...최대 3억2천만원 지원

고흥군은 중소·중견 제조 현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IT 기술로 통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중심의 첨단 지능형 공장으로서 공정자동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고흥군은 2억 3천만원의 군비를 포함한 사업비 15억원을 편성하여 2021

년 스마트공장 9개소(기초 8, 고도화 1)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악화에 놓인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업체별로 사업비의 80%를 보조한다. 이번 사업으로 제조업체는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 자동화장비, 센서 구입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수준은 생산정보 디지털화를 목표로 6개월 동안 진행되고, 고도화 수준은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을 목표로

9개월 동안 진행이 된다. 올해부터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제조혁신 정책과 함께 스마트공장 보급 정책도 질적 고도화로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구축수준을 나눠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도입 시 평균적으로 생산성 30% 증가, 품질 43.5% 향상, 원가 15.9% 감소 등 경영개선은 물론 산업재해 18.3% 감소, 평균 고용 3명 증가 등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 여수시,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교육' 실시

여수시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농촌마을 6개소를 순회하며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실시한다. 24일은 율촌면 봉전과 소라면 대포1구를, 25일은 화양면 서촌과 삼일동 효령을, 26일은 만덕동 오천, 돌산읍 금천을 찾아가는다. 농기계 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해 준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후방 안전반사표지판 무료 부착 서비스도 병행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 오늘부터 26일까지 3일간 농촌마을 6개소 순회 농기계 자가정비능력 향상·안전사고 예방 '기대'

교육시간은 09:00~13:00, 14:00~17:00로 마을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기계 자가정비능력을 배양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 실습을 하면서 3만 원 이하의 농업인들이 스스로 농기계를 점검 및 수리해 본격적인 영농철을 대비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지역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기동취재본부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